

# 수업시간에 '돋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교사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생이 되려면 단지 교사의 말에 잘 따르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대입 컨설팅 전문기관 'Admission Masters' (theadmissionmasters.com)의 Richard Vincent Kim 컨설턴트에 따르면 평소 교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소통을 더 잘 하게 되고, 수업에서 교사의 강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이 교사에게 최고의 학생이 된다면, 대학 입시에 필요한 강력한 추천서(letter of recommendation)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사 추천서는 대입 성공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 돋보이는 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먼저 교사가 믿을 수 있는 학생이 되는 것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 항상 규칙을 잘 따르기만 하는 학생이 가장 훌륭한 학생인 것은 아니다. 물론 규칙 준수는 학교 생활에서 기본이자 바탕이다. 수업 운영을 방해하면서 규칙에 순종하지 않는 학생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전제 하에 지적인 호기심이 가득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더 돋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학생은 교사로부터 특별한 신임을 얻게 된다.

만약 이런 적극성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가장 단순하게 '신뢰를 주도' 학교 생활을 하면 된다. 과제를물 제때 제출하고, 수업 시간에 늦지 않으며, 언제나 준비된 자세로 수업에 임하면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면 교사에게 '믿음이 가지 않는' 학생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돋보이는 학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팁

은 '팀 플레이어' 가 되는 것이다.

가장 훌륭하게 운영되는 수업의 대부분은 마치 운동팀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교사는 운동팀의 코치와 같이 수업을 리드하고 모든 학생이 선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수년 전에는 수업의 모델이 일부 적극적인 학생들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관찰하기만 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요즘 많은 교사들은 훌륭한 팀 플레이어에게 점수를 준다. 수업을 경청하고, 수업의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며, 수업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학생들이 바로 그들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팀 플레이어는 교사 뿐만 아니라 수업을 같이 듣는 다른 학생들과도 유연하게 교류한다.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돋보이는 팀 플레이어는 '다른 학생들이 이 학생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는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이다.

학생들은 보통 '팀 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 교실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능력 있는 교사는 단지 가장 똑똑한 학생보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는 학생을 더 높이 평가한다.

그럼 학생으로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일반적으로 이것은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어떤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져 공부할 마음이 없다면 짜증을 내기보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내용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될까?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는 것일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말이다.

해당 수업의 내용과 자신의 관심사, 또는 인생 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 합격생 절반이 다른 대학에 등록하는 명문대학들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받은 학부모라면 다들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그것도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좋은 대학에 합격해 놓고,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의 지난해 합격률은 3.2%였다. 하지만 등록률은 83%였다. 합격자 100명 가운데 83명만이 등록을 하고 나머지 17명은 다른 대학으로 진학했다는 말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은 명문대학의 상징이다. 세계 각국의 대입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합격률이 매년 3%~6% 정도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대학에 합격해 놓고 등록하는 학생들은 합격생의 절반 혹은 그 이하이 대학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그 이유는 복수 지원-복수 합격이란 미국의 입시제도 때문이다.

미국은 지원 대학 수에 제한이 없다. 능력이 있다면 100개 대학에도 지원할 수 있다. 미국 입시생들의 경우 성적 우수 학생들도 불합격 가능성 때문에 보통 10개~20개 대학에 지원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학생이 여러 대학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등록은 오직 1개 대학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미달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미국 대학들은 학생을 뽑는 일도 중요하지만 합격시킨 학생들을 지키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다. 합격한 학생이



자기 대학에 꼭 등록하도록 안내하고 '호소(?)' 하기도 한다. 또 만약 합격한 학생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기도 한다.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발생하는 경우 웨이팅 리스트에서 추가 합격생을 내고 합격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을 안내한다. 그렇다면 주요 대학들의 등록률은 어느 정도일까?

※ 대학명: 2022학년도 등록률(2022학년도 합격률)

- ▶ 하버드: 83.00%(3.24%)
- ▶ 예일: 67.89%(4.57%)
- ▶ 프린스턴: 69.17%(5.70%)
- ▶ 컬럼비아: 64.88%(3.74%)
- ▶ 다트머스: 62.17%(6.38%)
- ▶ 브라운: 67.15%(5.05%)
- ▶ 유엔: 68.01%(6.51%)
- ▶ MIT: 84.97%(3.96%)
- ▶ 앰허스트: 45.08%(7.00%)
- ▶ 듀크: 56.40%(6.17%)
- ▶ 존스 홉킨스: 51.30%(7.24%)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들이 더 많은 대학에 지원함에 따라 합격률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덩달아 등록률도 낮아지면서 대기자 추가합격자도 늘어나고 있다. 금년도 등록률은 9월 이후에 나온다.

그래픽=shutterstock

타운뉴스 www.townnewsusa.com

# 행복한 소식 가득 전합니다.

좋은 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는 1994년 창간 이래  
남가주 지역 한인과 함께  
호흡해 온 신문입니다.

타운뉴스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가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T.562.404.0027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